

朝鮮通信使 醫學筆談錄 내용 분석 - 醫書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²韓醫學古典研究所
金惠一^{1, 2} · 丁彰炫^{1, 2} · 張祐彰^{1, 2} · 白裕相^{1, 2}*

A Content Analysis of the Medical Conversation Records from the Visits of Joseontongshinsa - Focused on the Medical Classics -

Kim Hye-il^{1, 2} · Jeong Chang-hyun^{1, 2} · Jang Woo-chang^{1, 2} · Baik You-sang^{1, 2}*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fferences of the viewpoints about medicin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octors through analysing the contents of the medical conversation records from the visits of Joseontongshinsa.

Methods : The conversa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opics and analysed with emphasis on the subject of medical classics.

Results : Japanese doctors were skeptical about the application of *Huangdineijing*(黃帝內經) and the theory of Five Circulation and Six Qi(五運六氣) to clinical treatment while they respected *Shanghanlun*(傷寒論). They were interested in the bibliography of medical classics, and considered it was important to study the original texts rather than the new editions. The doctors of Joseon valued *Huangdineijing* highly and accepted the theory of Five Circulation and Six Qi. They mainly used the treatments in *Yixuezhengzhuan*(醫學正傳), *Yixuerumen*(醫學入門), *Shoushibaoyuan*(壽世保元) as therapeutic methods.

Conclusions : The conversation records reflect the trend of Korean Medicine in the Joseon Dynasty that *Huangdineijing* had been mainly studied and the Jin-Yuan(金元) Medicine had been accepted, and the trend of Japanese Medicine in the mid-Edo period that Koho school(古方派) had predominated.

Key Words : Joseontongshinsa(朝鮮通信使), medical exchanges, medical classics, Korean Medicine, Japanese Medicine

I. 序 論

조선 후기에 일본과의 交隣을 위해 파견한 ‘通信使’는 정치적 사절이기도 했지만, 通信使行은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했다. 일본의 識者들은 詩文의 唱酬과 筆談을 통해 조선의 문사, 학자들과 교류하는 데에 적극적이었고, 그 筆談錄은 흔히 당년이나 이듬해에 출간되었다. 그 중에 醫事問答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에도 막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醫學筆談錄은 연구 가치가 높은 사료이다. 의학 교류의 현장기록으로서 당시 의사들의 관심사가 직접 드러나 있으므로 朝日 의사들의 관점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기간 여러 차례 만남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영향을 가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의사들이 이전 使行의 필담록을 읽고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러나 通信使 醫學筆談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3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 연구>를 통해 일본 각처에 소장된 의학필담록을 조사, 수집하였으며¹⁾, 2008년부터는 연세대학교에서 학술진흥재단 토대연구로 <조선후기 통신사 필담창수집의 수집,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여 번역총서를 출간하고 있는데²⁾ 이 총서에 의학 관련 필담도 몇 편이 포함되어 있다. 한의학 전공자와 타분야 전공자에 의한 의학적 분석, 문화사적 연구 등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어³⁾ 필담록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많

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통신사행을 통한 의학 교류의 전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미처 발굴되지 않은 의사문답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원문 텍스트의 수립과 번역에도 미진한 점이 있고, 간혹 심각한 오역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 경우마저 있었다.

통신사행을 통한 의학 교류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자료의 조사와 확보가 절실한데, 그 방법 중 하나로 지금까지 발견된 필담록들의 상세한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 목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현재 작성 중인 목록을 보고하고, 아울러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의 필담록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朝日 의학의 경향과 시대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연구 방법

(1) 목록 조사

선행연구에서 작성된 의학필담록의 목록을 조사하고 재확인, 보완하여 통합 목록을 작성한다.

의학필담의 목록을 기재한 기존 논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아래의 부기사항은 논문 전체의 연구 방향과는 별개로, 기재한 목록의 성격만을 밝힌 것이다.

- 2006 차웅석,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학문화교류」

2003년 한의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 목록을 실었으며, 43종 중 동일 자료를 묶어 21종으로 정리하였다.

- 2007 함정식·차웅석·유원준·김남일 「조선통신사 사행원과 기록 연구 : 18세기 사행록과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제8차~제11차 사행의 필담록을 정리하고 사행에 참여한 조선 의사들의 성명을 기재했으며, 필담록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0326 Fax : +82-2-961-9229
E-mail : baikys@khu.ac.kr
Received(31 October 2015), Revised(13 November 2015), Accepted(16 November 2015).

1) 이때 수집된 필담록들은 현재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사이트에 간략한 해제와 서지정보, 원문 텍스트가 공개되어 있다.
2) 각 권마다 필담집 각각의 해제와 번역문, 원문, 영인 이미지를 수록하고 있다.

3) 일본 논문 중에는 의사문답에 초점을 둔 것이 거의 없고, 국내의 연구로는 의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논문이 10여 편, 연세대학교 번역팀을 중심으로 국문학 분야 등 연구자들의 논문이 10여 편 나와 있다.

외에 해당 사행의 사행록을 추가 기재하였다.

- 2008 김호 「朝鮮後期 通信使와 韓日 醫學 交流 - 筆談錄을 중심으로」

의학 관련 필담록 24종의 국내의 소장처 정리하였다.

- 2009 홍성덕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사행별 의원 명단을 수록했으며, 이를 醫科 입격자 명단과 대조하였다. 필담집 목록은 차용석의 2006년 논문을 따랐다.

- 2009 김형태 「18세기 전반기 通信使 醫學筆談의 展開 및 內容의 特性 - 『兩東唱和後錄』, 『桑韓醫談』, 『桑韓鏘鏗錄』下,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필담집 4종의 서지사항을 수록하고 내용을 정리했다.

- 2010 함정식·차용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 『對麗筆語』, 『韓客治驗』,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사행별 의학문답의 성격을 ‘후세방, 고방, 침구, 본초·박물, 종합적 성격’으로 분류하였으며, 필담 참가자 외에도 관련된 일본의 주요 의가들을 기재하였다.

- 2010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 필담집의 출판 양상」

필담록의 출판지, 출판자, 출판연도, 형태(간·사본), 저자·편집자, 필담 참여자, 필담 장소를 정리하였다.

- 2012 김형태 「통신사 의원필담(醫員筆談)에 구현된 조일(朝日) 의원의 성향 연구 - 관심 분야와 화제(話題) 분석을 중심으로」

사행별 필담록의 저자·참여자, 필담 장소, 출간지, 형태(간·사본), 분량을 기재하였다.

- 2013 구지현 「1748년 조선 양의(良醫)와 일본 관의(官醫)와의 필담 출현과 서적담화 양상」

일본 의사별로 官醫인지 민간 의원인지를 밝히고 그가 참여한 필담록을 정리하였으며, 필담 장소와 형태(간·사본)를 기재하였다.

이상의 목록들을 검토한 결과, 의학필담에 포함시켰으나 내용에서 醫事問答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었고, 제목이 비슷한 별개 문헌을 혼동하여 다른 것을 기재하기도 하는 등 자료의 검증이 완전하지 않다. 또 소장처, 형태서지, 刊記, 序跋 등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결본 여부나 판본의 同異를 가리기가 어려운데, 물론 여러 차례 재간되는 의서와 달리 다수의 판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밖에 필담의 참여자와 일시, 장소 등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었고 年度, 書名, 人名에서 誤記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통신사 의학필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통합 목록을 갖추고자, 앞선 연구의 목록을 통합, 재확인하여 소장처, 형태서지, 주기사항, 필담의 일자와 장소, 관련된 인물의 배경 등을 망라한 통합 목록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세부사항에 오차가 있는지 관련 사료를 참고하여 검증, 보완할 계획이다. 작성 중인 목록을 주요 항목만 간추려 본고의 말미에 따로 첨부한다⁴⁾.

(2) 내용 분석

조사 중인 목록을 토대로 각 사행차수에 해당하는 필담록의 원문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다. 목록에서 확인된 여러 소장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영인 이미지를 수집하되, 영인 이미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DB의 원문 텍스트를 활용한다. 본고에서는 문답 내용을 疾患 관련 문답, 本草 관련 문답, 醫書 관련 문답 등 주제별로 발췌하여 國譯하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醫書에 초점을 두어 당시대 양국 의사들의 관심사, 관점의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2. 通信使 醫學筆談錄 개괄

(1) 醫事問答의 시기별 분포

지금까지 발견된 통신사 필담집의 간행 건수⁵⁾와

4) 참여한 인물의 師承關係 등 배경에 대한 조사가 아직 미흡하므로 본고의 부록에서는 해당 항목을 생략하였다.

5) 허경진, 박혜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일본 출판. 한국

의학필담의 수⁶⁾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1. The number of published conversation records and the number of medical conversations

| 사행차수 | 필담집 출판 | 의학필담 |
|-----------|--------|------|
| 4차(1636) | 2종 | 1종 |
| 7차(1682) | 4종 | 1종 |
| 8차(1711) | 9종 | 3종 |
| 9차(1719) | 10종 | 4종 |
| 10차(1748) | 18종 | 11종 |
| 11차(1764) | 23종 | 6종 |
| 12차(1811) | 2종 | 없음 |
| 합계 | 68종 | 26종 |

간행된 필담집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8차~11차 사행인데 이는 일본의 에도 중기, 조선의 숙종~영조 때이다. 초기 사행은 교린의 재개, 왜란의 포로 송환 등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점차 문화적 교류가 본격화되어 8차~11차 사행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⁷⁾, 양국의 재정적 상황 등으로 인해 12차(1811년) 사행은 대폭 간소화되어 에도까지 가지 않고 대마도에서 거행되었으며⁸⁾ 이후에는 더 이상 통신사가 파견되지 않았다.

의학필담록 역시 8차~11차 사행에 집중되어 있

으며 특히 10차 사행에서 큰 폭으로 늘어, 필담집 전반의 간행 통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사행 인원에는 원래 醫員 2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주된 역할은 사행의 긴 여정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비하는 것이었는데, 제7차 사행부터는 ‘나이가 많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의사를 보내 달라’는 일본 측의 요청에 의해 ‘良醫’라는 명칭으로 1인을 추가 선발하여 파견하였다⁹⁾. 의원들은 물론 製述官이나 書記 등의 필담에도 의학 관련 내용이 들어있지만 의사문답은 대개 良醫의 몫이었으며, 거의 모두 일본 의사가 묻고 조선 의사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일본 측의 그러한 요청에는 지식이 풍부한 의사를 만나 정보를 입수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1748년 10차 사행의 필담록인 『朝鮮筆談』을 보면 官醫인 河村春恒(카와무라 슌코)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조정의 명을 받아서 만나러 왔다”고 밝히기도 하며, 그 외에도 필담록을 남긴 일본 의사들 중에는 막부에 등용된 본초학자, 에도의 醫官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11차 사행에서 필담집 전체의 간행 건수는 10차보다 많은 반면 의학필담의 수는 크게 감소한다. 조선 의사들에게서 입수하고자 했던 정보를 이미 충분히 얻어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 한편 이 시기는 長崎(나가사키)를 통한 서양문물 유입이 많아진 때이므로 정보 수입 창구로서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이다.

(2) 내용 개괄

본격적인 의사문답이 이루어진 8차~11차 사행의 필담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여 사행 차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필담의 화제는 本草, 疾患, 醫書에 대한 문답이 주를 이루며, 그밖에 鍼灸에 대한 문답이 약간 보이고, 일본의 민간 양생법에 대해 조선 의사의 견해를 묻는 내용, 조선 의사가 일본의 의료 제도에 대해 묻는 내용 등이 있다. 대체로 본초의 감별이나 특정 질환의 治方 등 단편적인 정보의 수집과 확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문학연구. 2010. 54. p.314 표8.
6) 의원들 사이의 필담만을 기록한 의학필담집과 醫事問答이 일부 포함된 필담집, 刊本과 寫本을 합한 수이다. 題名이 다르고 詳略의 차이가 있더라도 내용이 같은 경우는 1종으로 처리하였다.
7) 임진왜란으로 중단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는 1607년 회담겸쇄환사의 파견, 1609년 기유약조의 체결로 정상화되었다. 1607년 1차 회담겸쇄환사의 파견 후, 1617, 1624년에 2, 3차 회담겸쇄환사가 파견되었다. 그리고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12차례의 사행을 회담겸쇄환사와 통신사로 구분하거나, 합쳐서 통신사로 부르기도 한다.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國譯 通信使叢錄(1). 釜山史料叢書20. 부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p.15.
http://tour.busan.go.kr/TOURFB/nbtt_p.htm#[아래아 한글 파일]
8) 사행 인원 중의 의원도 수를 줄여서 파견하였다.

9)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 연구. 2009. 32. p.106, 108.

으며, 의학의 이치를 논한 내용은 많지 않다. 醫書 관련 내용은 뒤에서 따로 논의하도록 한다.

1) 疾患 관련 문답

자신의 병에 진맥을 부탁하여 처방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하고, 난치 질환에 대해 치법을 문의하거나 자신이 진료했던 환자의 예를 들며 처방을 구한 경우 등 임상적 수요가 반영된 질문 위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의사들은 대개 증상 기반의 질환명을 거론하면서 그에 대한 특효방을 물었다. 조선 의사들은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다 치료할 수는 없다”며 辨證을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데, 대부분 臟腑辨證을 주로 하여 치법, 처방을 제시했다.

언급된 질환은 耳聾, 蓄血證, 腫脹, 痔疾, 赤白痢, 關格, 舌疔, 癩癧, 脚氣, 噎膈, 癰癤, 瘡疾, 狂犬病, 下疳, 楊梅瘡, 偏枯 등으로 다양하지만, 특히 勞瘵傳尸에 대한 질문이 8차(1711)~11차(1764) 사행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번 등장한다.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이 병이 많은데 속수무책”이라면서 꼭 처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勞瘵傳尸는 전염성이 있는 虛勞病이니, 이 병이 오래도록 문제가 된 데에는 서민 경제의 악화와 잦은 기근 등 사회적 배경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⁰⁾. 소아의 疳病에 대한 질문도 8차~10차 사행의 필담록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 역시 기근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本草 관련 문답

문답의 주제 중 횡수로 볼 때 본초에 관련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1748년 제10차 사행의 『班荊閒譚』, 『朝鮮人筆談』, 『兩東筆語』와 같이 필담록 전체가 거의 본초 관련 문답으로만 채워진 경우도 있다. 일본 의사들의 질문은 흔히 사용되는 약재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서적에 나오는 동식물

명칭의 정체를 묻거나 표본을 내보이며 조선에서 부르는 명칭을 묻곤 하는데, 이러한 질문 공세의 배경에는 에도 막부의 ‘조선 약재 조사’가 있었다. 이 조사는 제8대 쇼군인 德川吉宗(토쿠가와 요시무네)¹¹⁾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평소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취임 2년 뒤인 1718년 대마도에 요구하여 헌상받은 『東醫寶鑑』을 접한 후 조선 약재를 상세히 조사할 것을 명하며¹²⁾, 이는 고가의 수입 약재를 자급화하여 국부를 축적하려는 殖産興業 정책의 일환이었다¹³⁾. 에도 막부는 1718년, 1721년, 1732년 3차에 걸쳐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하고 식물, 표본, 도상을 수집하는데, 1732년의 제3차 약재 조사를 주도한 것은 德川吉宗에게 본초학자로 기용된 丹羽正伯(니와 쇼우하쿠)였다. 그는 스승인 稻生若水(이노우 잭스이)의 뒤를 이어 『庶物類纂』을 증보, 완성하고 『東醫寶鑑湯液類和名』(1726)을 편찬한 인물이다. 그의 필담록이 『兩東筆語』(1748년 10차 사행)인데, 조선 의사들에게 확인할 목적으로 미리 작성하여 良醫 趙崇壽에게 전달한 「朝鮮國物産目次」가 본문 앞에 실려 있다. 『朝鮮人筆談』(10차)에서 野呂元丈(노로 겐조우)는 약재 실물을 보이면서 진품 여부를 묻기도 하고, 趙崇壽가 약재를 보여주면 일본의 것과 비교하여 기록하였다. 그도 丹羽正伯와 마찬가지로 稻生若水の 제자이자 德川吉宗에 의해 기용된 본초학자이며, 두 사람은 모두 뒤에서 논의할 인삼 국산화 사업에 관여하였다¹⁴⁾. 또한 『訂正東醫寶鑑』¹⁵⁾ 간행(1724) 이후인 10차 사행부터는 『東醫寶鑑·湯液篇』의 본초에 관련된 질문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초 관련 질문 가운데 특히 많은 것이 人蔘에

10) 18세기에 일본 경제의 규모는 급성장하였으나, 화폐경제 침투의 반작용으로 농가의 부채와 토지 저당이 늘어난 데다 기근이 잦아 농민봉기가 발생할 정도였다. 1732년의 享保(교호) 대기근, 1756년의 宝曆(호레키) 대기근, 1782년~1787년의 天明(텐메이) 대기근 등 수만 명의 사망자수를 기록한 대기근도 이 시기에 여러 차례 있었다. 에도 막부가 집권하고 있었으므로 전쟁의 여파로 인한 기근은 아니었고, 冷害나 해충의 창궐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11) 재임 기간은 1716년~1745년. 1751년 사망할 때까지 막부의 실권을 쥐고 있었다.
 12)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p.254.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마도중가문서자료집 藥材眞正紀事, 2015년 10월 27일 검색.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ts_005
 14)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p.254.
 15) 막부 醫官인 源元通(미나모토 겐즈)가 朝鮮版 『東醫寶鑑』을 교정하여 1724년에 간행하였다.

대한 내용인데, 이는 당시 일본에서 조선 인삼이 만 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사회문제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 가격의 폭등과 품귀현상으로 인삼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으며, 인삼 대금으로 조선에 지불되는 銀의 양도 막대했다. 조선 약재 조사의 또 다른 목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인삼을 이식 재배하여 국산화하려는 것이었다¹⁶⁾. 조선의 동식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삼의 種子와 生草, 生根이 수차례(1721년~1728년) 밀반출되어 德川吉宗에게 현상되었으며¹⁷⁾, 결국 1730년대에는 인삼의 대량 재배에 성공한다¹⁸⁾.

필담록의 인삼 관련 질문 역시 재배 성공을 기점으로 내용상 변화를 나타낸다. 인삼의 높은 가격과 품귀현상이 문제였던 재배 성공 이전 시기, 즉 8차와 9차 사행에서는 어떤 약재가 인삼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러 본초서적에 기재된 인삼의 형태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 등의 질문이 주를 이루었으나, 재배에 성공한 후인 10차와 11차 사행에서는 구체적인 재배 요령, 수치 및 포제, 보관법, 진품의 감별법, 주지증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아진다. 재배에는 성공했지만 그 품질과 효능도 조선 인삼에 비길 만하지 검증하고 개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삼의 '製法'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중요한 질문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 재배된 인삼은 쓴맛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苦味를 줄이고 조선 인삼과 같은 甘味が 생기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내려 한 것이다.

3. 醫書 관련 문답

(1) 주요 문헌에 대한 朝日 의사들의 관점

1) 『內經』

① 版本 관련 문답

일본 의사들은 全元起본이 조선에 있는지, 高麗에서 北宋에 『鍼經』 현상한 일에 대해 묻는 등 古本

에 관심을 보였다. 또 『內經』이 戰國時代의 책이라는 설에 대하여 의견을 묻는 일이 많았는데, 질문자 자신은 대체로 古經이 맞다는 입장이다.

- 9차 (1719년 己亥) 『桑韓唱和填篋集』 卷八

飯田玄機 : 제가 일찍이 『皇朝類苑』¹⁹⁾을 보니 “哲宗 때 高麗에서 현상한 책 중에 『黃帝鍼經』 九卷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도록 兵火를 겪어서 거의 亡失되었는데, 우연히 동방에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현상된 것은 篇帙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마땅히……”라고 하였습니다. 귀국에서 전한 일에 대해 지금도 징험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權道²⁰⁾ : 『黃帝鍼經』이 우리나라에 있기는 합니다. 다만, 옛날에 中華에서 온 것으로 人家에 간혹 있을 뿐이고, 최근에는 板刻한 일이 없어서 아주 희귀합니다.

- 10차 (1748년 戊辰) 『仙槎筆譚』

橋元勳²¹⁾ : 全元起가 풀이한 『素問』이 귀국에는 남아있습니까?

趙崇壽²²⁾ : 全起의 주석은 사람들이 잘 거론하지 않는데, 공께서 묻는 것은 왜입니까?

橋元勳 : 『素問』의 今文은 唐나라 王冰이 編次한 것인데, 「天真論」이 古本에서는 第九卷에 있었다고 합니다. 古文을 보아서 옛것 중의 옛것을 살피고 싶을 뿐입니다.

趙崇壽 : 第九卷에 있었다지만, 이미 王註가 갖추어져 있고 저의 견해도 마땅히 上篇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全註이든 王註이든 모두 읽매일 필요가 없으니, 다만 醫者가 깊이 연구함에 달려있습니다. 本文에도 錯簡이 많으니 주석 역시 오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읽고 음미하면 자연히 얻는 바

16)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pp.260-263.

17)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p.277.

18)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p.302.

19) 宋나라 江少虞가 편찬한 『宋朝事實類苑』을 말한다. 日本 木活字本の 제목이 '皇朝類苑'이며 '皇宋事實類苑'이라고도 한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事實類苑'으로 기재되어 있다.

20) 1719년 9차 通信使行의 良醫. 字는 大原, 號는 卑杜齋. 당시 42세로 직급은 副司果였다.

21) 당시 太醫令, 즉 典藥頭였다. 궁정 내에서의 진료, 의료인원의 양성 등을 총괄한 관직이다.

22) 1748년 10차 通信使行의 良醫. 字는 敬老, 號는 活庵.

가 있을 것입니다.

橘元勳 : ……지난번에 『素問』의 經文에 錯簡이 있고 주석에도 오류가 없을 수 없으니 熟讀하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素問』과 『九靈』에 분명 뒤섞인 곳이 많으며, 주석이 다양하여 각각 見識이 있으니, 서로 대조해 보아서 절충해야 할 것입니다. 初學者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전해진 經書의 正文을 읽습니다. 이는 양국이 마찬가지로 千古의 公論입니다. 全元起의 註解書를 보고자 하는 것 역시 古本의 正文을 보려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全元起本이 없어졌고 明나라 醫家들도 全註를 칭하는 자가 드무니, 全本이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 우려됩니다.

- 9차 (1719년 己亥) 『桑韓唱和填篋集』 卷九

飯田隆慶²³⁾ : 『靈樞』와 『素問』은 선현들이 戰國時代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成孟良²⁴⁾ : 옛사람들이 『靈樞』와 『素問』은 戰國時代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알은 견해로는 감히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鄭東溟²⁵⁾은 文章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이 책을 읽기 좋아하였으며 그 문장이 매우 예스럽고 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 10차 (1748년 戊辰) 『善隣風雅後編』

佐藤養浩 : 『素問』은 程子가 戰國時代의 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 經文은 전국시대의 풍격이 맞습니다. 아마도 전국시대의 諸賢들이 구전되다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글로 써서 후세에 전한 것이니, 바로 伏生이 『尙書』를 전한 경위와 같습니다²⁶⁾.

23) 飯田隆慶(이이다 타카요시)의 아버지인 飯田榎隆(이이다 무네타카)는 古方派 시조인 名古屋玄医(나고야 겐이)의 제자였다.

24) 1748년 10차 使行의 書記. 號는 嘯軒.

25) 鄭斗卿(1597~1673). 號 東溟. 朝鮮 顯宗 때의 文臣으로서 詩文에 뛰어나고 典故에 밝았다.

26) 『尙書』가 秦始皇의 焚書로 散逸된 후, 漢文帝 때 伏生이 口承한 것을 당시 통용되던 隸書로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今文尙書』이다.

(이하 『素問』의 내용 중 至人·真人·聖人, 君相二火, 厥陰陽明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조선의 良醫 趙崇壽는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니 자세히 생각해 보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만나지 못했다.)

- 11차 (1764 甲申) 『兩東鬪語』

橫田東原은 미리 작성해 온 글에서 『內經』이 僞書라는 설을 비판하며, 『傷寒論』 自序에서 『素問』, 『九卷』을 언급한 것과 仲景의 醫論 중에 今文 『內經』의 말이 보이는 것 등에 근거하여 『內經』은 古經이 맞다고 장황하게 주장한다.

② 運氣 관련 문답

조선 의사는 運氣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일본 의사들은 회의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이다. 運氣篇이 王冰의 날조로서 妄說이라 하거나, 『內經』의 運氣說을 중시하지 않는다며 『內經』 자체가 僞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 10차 (1748년 戊辰) 桑韓醫問答(下)

河村春恒 : 全元起가 처음 『素問』을 주석할 때는 第七卷이 없었는데, 王冰이 거짓으로 없어진 第七卷을 얻었다면서 자기의 邪說을 내세웠습니다. …… 經에는 본래 五運六氣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天元紀大論』에 처음 나와서 『至真要大論』으로 끝나며, 經에서 四時五行이 사람에게 미치는 것을 설명할 때는 五運六氣를 언급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越人の 『難經』, 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 王叔和의 『脈經』, 皇甫謐의 『甲乙經』 등은 다 經의 뜻을 밝힌 책인데 모두 五運의 說이 없습니다.

趙崇壽 : 王冰이 망령되어 補入했다는 설은 고증할 수가 없으니, 이미 오래된 이야기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運氣의 說로 말하자면 비록 王冰이 스스로 지은 것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본받을 만하니, 버려서는 안 됩니다. …… 運氣는 바로 天地間에 流行하는 기운입니다. 사람은 天地를 본뜨는데, 運氣를 버리고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仲景이 傷寒을 논할 때나 士安이 『甲乙』을 지을 때에도 모두 運

氣에 근거했습니다. 어찌 반드시 加臨, 司天, 在泉을 말해야만 運氣라 하겠습니까?

- 10차 (1748년 戊辰) 『仙槎筆譚』

趙崇壽 : 『內經』의 대체는 오로지 運氣篇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辨說(橘元勳이 미리 써서 보여준 黃帝登天에 대한 글)은 실질적인 공부 가 아닌 듯합니다. 運氣에서 이른바 司天, 在泉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지 못하니, 공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橘元勳 : 登天에 대한 논설이 비록 急務는 아니지만, 제가 經을 해석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登天' 두 글자는 今文 『內經』을 펼치면 맨 처음 나오는 것이므로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經에서 토론해야 할 문제가 분명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運氣도 급히 논할 만한 것이니, 저희는 脈絡病機와 五運六氣를 가장 많이 講習합니다. 나중에 經의 해석이 완성되면 귀국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趙崇壽 : 經의 뜻을 어찌 갑작스럽게 묻고 논하겠습니까? 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 10차 (1748년 戊辰) 『兩東筆語』

趙崇壽 : 『素問』과 『難經』의 이치를 밝히고 五運六氣의 절도를 안 다음 藥性의 氣味와 百病의 情狀을 분별하면 本末과 終始가 어긋남이 없을 것이니, 醫學의 일에는 이보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丹羽正伯 : 저는 다년간 두 經의 運氣가 醫門의 鼻祖가 되는 것에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제 생각에 河間, 潔古, 東垣, 震亨의 책은 모두 두 經의 運氣說을 주장하였으며, 後世에도 이 四賢의 따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仲景, 孫思邈, 王燾, 許叔微의 책은 대개 方劑와 病情을 주로 하고, 두 經의 運氣說은 보조로 삼았습니다. 後世에 醫學을 공부하는 자들이 이러한 두 부류로 나뉘어, 一步千里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쩌나라 褚澄이 『內經』에 대해 논하기를, 秦漢 方術家들의 僞書라고 했습니다. 褚澄의 말에 따르면 秦漢의 地名이 黃帝의 책에 실렸을 리가 없으니, 절대로 黃帝의 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劉·張·李·朱 四賢은 널리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서 밝게 분별하지 않고 모두 黃帝와 岐伯의 책으로 여겨 尊信하였는지, 저는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년간 찾아보고 물어보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었으니, 공께서 알려주셔서 제 답답함을 풀어 주십시오.

趙崇壽 : 공께서는 子弟들을 가르칠 때 어떤 책을 醫門의 標的으로 삼아 講習하게 하십니까?

丹羽正伯 : 저는 子弟들을 가르칠 때 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을 標的으로 삼고, 『千金』, 『外臺』, 『本事方』, 『得效方』을 보조로 삼습니다. 『素問』과 『難經』의 運氣 역시 秦漢 名醫들의 格言으로서 醫道에 크게 龜鑑이 되므로 講習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기초로 삼는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趙崇壽 : 仲景의 『傷寒論』은 오로지 두 經의 말을 근본으로 하였고, 또 두 經의 說으로써 綱領을 세웠으며, 證候와 方藥으로 節目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仲景 역시 두 經을 鼻祖로 삼은 것이니, 책은 다르지만 뜻은 같습니다. ……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仲景의 遺編을 尊信하며 『素問』, 『難經』의 運氣說은 탐탁지 않게 여기시고, 古方에 從事하며 劉·張·李·朱의 단점을 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醫門에서는 예전부터 모두가 『素問』, 『難經』의 運氣說을 받들며 四大賢을 흠모해 왔으니, 제가 따르는 것은 모두 그분들입니다. 지금 공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두 經의 運氣로 절충하여 답변하고 싶지만, 공께서 배척하고 버리시는 바가 곧 제가 의탁하는 바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절정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 10차 (1748년 戊辰) 『桑韓鏘鏗錄』

金德崙 : 에도에 들어갔을 때, 귀국의 太醫께서 『素問』의 運氣를 모두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공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百田安宅 :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金德崙 : 역시 運氣를 믿지 않으십니까? 문장이 간략하여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百田安宅 : 간략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取舍 여하를 단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③ 九鍼 관련 문답

일본 의사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鍼法이 『靈樞』의 九鍼之法과 다르다며, 조선에는 九鍼이 온전히 전해져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다.

- 9차 (1719년 己亥) 『桑韓唱和墳篋集』 卷八

飯田玄機 : 귀국의 鍼法은 지금도 『靈樞·九鍼』의 옛 법을 씁니까? 후세에 따로 방법이 있습니까?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權道 : 鍼法은 『黃帝鍼經』을 주로 하지만, 『靈樞經』과 『神應經』에서 논한 것이 혹 대개는 같으나 조금 다른 곳이 있고, 나머지 다른 針經에서 논한 것도 제각각입니다. 術者가 절충하여 잘 쓰는 데에 달렸을 뿐입니다.

- 11차 (1764년 甲申) 『兩東鬪語』

橫田東原이 일본에서 쓰이는 鍼法은 『靈樞·九鍼』의 九鍼之法과 鍼形, 刺法이 다르다고 말하고, 일본에서 쓰는 鍼 몇 가지를 『靈樞』의 鍼法과 비교한 후, 10차 사행 당시 良醫 趙崇壽가 “어찌 圓鍼을 폐하겠느냐”고 한 말²⁷⁾을 인용하면서 朝鮮에는 九鍼이 다 전해지는 듯하니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李佐國²⁸⁾이 破腫鍼, 三稜鍼, 圓鍼을 보여주며 각각 大中小가 있어 九鍼이라고 하자, 橫田東原은 『靈樞』의 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한다.

2) 『難經』

『素問』의 運氣醫學과 관련하여 언급한 경우 외에 『難經』을 따로 논의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볼 수 있는 것은 版本이나 注釋과 관련된 내용이다. 『難經』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주석 내용이 어떠한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볼지 못했으나 後世派와 古方派 醫家가 각각 『難經』 주석을 저술한 점이 흥미롭다. 唐代의 序文이 『難經本義』에 실리지 않은 것을 애석해하는 데에서도 ‘古本’을 중시하는 일본 의사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27) 10차 1748(戊辰) 『桑韓醫問答(下)』에 실려 있다.

28) 1764년 11차 通信使의 醫員. 字는 聖甫, 號는 慕庵. 품계와 직급은 중9품 副司勇이었다.

- 10차 (1748년 戊辰) 『對麗筆語』

菅道伯 : 『難經』은 거의 滑壽의 주석만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大阪(오사카)의 見宜先生²⁹⁾이 『難經或問』을 지었고, 또 玄醫先生³⁰⁾이 『難經註』³¹⁾를 지었는데, 둘 다 滑氏의 주석보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趙崇壽 : 越人の 『難經』에 대해 後世의 누가 감히 그 蘊奧를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논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古註가 아니면 불가합니다.

菅道伯 : 그대는 이들 주석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째서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또 古註라고 하신 것은 누구의 주석입니까?

趙崇壽 : 『難經』은 본래 주석이 없어도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0차 (1748년 戊辰) 『和韓唱和附錄』

田中常悅 : 『難經』은 원래 序文이 없습니다. 이는 華陀가 남긴 것인데 脫簡되어 전해지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文苑英華』第七百三十五卷³²⁾을 보니 「黃帝八十一難經序」를 싣고 唐나라 王勃³³⁾이 지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元나라 滑伯仁이 지은 『難經本義』에는 自序와 諸序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經이 전해진 경위를 논한다면서 王勃의 原序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으니, 제 생각에는 이 序文을 僞造라고 여겨서 논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滑氏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英華』라는 책은 宋나라 때 三太郎 중의 하나이므로 僞造된 것을 함부로 신지는 않았을 테니, 滑氏가 그 原序를 생략하여 聖經에 붙이지 않은 것은 역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 써서 보여주십시오.

趙崇壽 : 『難經』의 序文은 王勃이 지은 것이 아니라 唐나라 王氷이 지은 것입니다.

29) 古林見宜(후루바야시 겐기) : 1579~1657. 後世派 의가인 曲直瀬正純(마나세 쇼우준)에게 사사하였다.

30) 名古屋玄醫(나고야 겐이) : 1628~1696. 古方派의 始祖이다.

31) 名古屋玄醫의 『難經註疏』를 말한다.

32) 『文苑英華』 : 宋代의 詩文選集. 『太平御覽』, 『太平廣記』, 『冊府元龜』와 함께 宋나라 四大書로 꼽힌다.

33) 唐나라 初의 詩人. 字는 子安. 初唐四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田中常悅 : 그렇다면 『英華』에서 잘못 기록했습니까?

趙崇壽 : 『英華』가 잘못된 책인 것이 아니라, 版木을 새긴 사람의 실수입니다.

田中常悅 : 지금 『難經』에 붙어있지 않은 것은 滑氏 등이 역시 취하지 않아서입니까?

趙崇壽 : 『難經』은 越人の 책이니, 後人の 序文이 혹 미진한 것이 있더라도 반드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欄外註 - 田中常悅 : 王勃의 이 序文은 板刻을 잘못된 것이 아니니, 序文의 글을 보면 명백하다. 아마도 趙崇壽는 이 序文이 있는 줄을 모르고 갑자기 질문을 받자 아무렇게나 대답한 듯하다.】

3) 「傷寒論」

版本과 注釋書에 대한 문답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의사들은 다양한 『傷寒論』 주석서를 접하고 공부하였으며, 청나라로부터 많은 주석서를 수입한 것을 조선 의사에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內經』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傷寒論』에 대해서도 王叔和의 撰次를 문제 삼거나 『金匱玉函經』의 내용에 대해 穿鑿하는 등 ‘古本의 원래 글’을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조선 의사들은 다양한 주석이나 판본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9차 (1719년 己亥) 『桑韓唱和填篋集』 卷九

飯田隆慶 : 『傷寒論』의 주석서 중 『仲景全書』, 『尙論篇』, 『傷寒論條辨』, 『傷寒論後條辨』, 『傷寒論集注』, 『傷寒續論』은 제가 보았습니다. 귀국에는 이들 외에 다른 註解가 있어서 통용되는지요? 청컨대 그 목록을 알려주시면 무척 다행이겠습니다.

白興詮³⁴⁾ :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면, 그대는 傷寒의 범을 깊이 공부하였기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니 훌륭합니다. 저는 醫方을 대강 배웠을 뿐 환히 알지는 못하니 항상 이것이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우리나라의 傷寒 서적으로 별다른

주석은 없고,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仲景의 本意를 얻는 데에 힘을 뿐 주석을 열심히 구하고 찾지는 않습니다.

金光泗 : 지금 그대가 물으시는 것을 보니 분명 岐黃의 術에도 밝을 것입니다. 傷寒은 어떤 책을 주로 하고, 風을 치료하는 데에는 또 어떤 醫論을 주로 하며, 鍼法은 어떤 책을 주로 하시는지요?

飯田隆慶 : 저는 견식이 약아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대가 물으신 것은古今에 해결되지 않은 난제이니, 몇 마디 말로 논할 수 없습니다.

- 9차 (1719년 己亥) 『桑韓唱和集』

築山克修 : 『傷寒論』의 注疏로서 귀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책이 있습니까?

白興詮 : 傷寒方은 張仲景의 『金匱玉函經』이 있고, 王叔和, 成無己, 陶華 등 여러 사람이 發明한 것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傷寒全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築山克修 :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근세에 수입된 책으로 喻昌의 『尙論篇』, 程應旻의 『傷寒論後條辨』 외에도 諸家の 해설서 수십 종이 있는데, 그대는 아직 못 보셨는지요?

- 10차 (1748년 戊辰) 『兩東筆語』

丹羽正伯 : 지금 볼 수 있는 仲景의 두 책이 전부 仲景의 손에서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 「平脈法」, 「辨脈法」 등은 모두 쯤나라 王叔和가 撰次한 것이고, 六經의 病狀만이 仲景의 遺編입니다. 仲景의 책은 遺編만이 겨우 남아있고 全篇이 없었는데, 王叔和가 그 舊論을 가려 뽑아 證候를 추론하고, 診脈과 藥方은 『素問』, 『難經』의 運氣說을 가지고 서로 發明하여 撰次한 것입니다. 宋나라 成無己가 여기에 주석을 하였으며, 그 후에 또 龐安常, 朱肱, 許叔微, 韓祇和, 王寔 등이 나와서 저마다 풀이를 했지만, 張仲景의 經과 王叔和의 傳이 종종 뒤섞여서 主客이 나뉘지 않았습니다. 후세의 呂復이나 王履 같은 이들은 이것을 분별하였으니, 周恭의 『醫說會編』에 실려 있습니다. 王叔和가 撰次한 일은 지금 보이는 『傷寒論』 중 「傷寒例」의 본문 속에 뚜렷한

34) 1719년 9차 사행의 醫員. 字는 君平, 號는 西樵. 肅宗朝부터 英祖朝까지 內醫院에서 활동하였으며 중국 使行에도 참가하였다. 加藤忠懿의 『和漢人參考』(1744)에 白興詮과 의人蔘 관련 문답이 실려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傷寒論』, 『金匱要略』에서 오래도록 풀지 못한 의문들을 여쭙어볼 수 있다면 단단한 얼음이 봄별에 녹듯, 가난한 집 부엌에 곡식이 가득해지듯 할 터인데, 공께서 귀국하실 때가 닥쳐오니 평생의 한이 될 것입니다.

- 11차 (1764년 甲申) 『和韓醫話』

李佐國 : 仲景의 『傷寒論』과 『丹溪心法』의 좋은 판본이 있으면 구입하도록 주선해 주시겠습니까?

山口忠居 : 돌아가실 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李佐國 : 대단히 감사합니다.

山口忠居 : 『傷寒論』은 어떤 판본이 옳다고 보십니까?

李佐國 : 宋版이 더 좋습니다.

山口忠居 : 『傷寒論』은 그 뜻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佐國 : 어째서 어렵다고 하십니까?

山口忠居 : 仲景의 말은 아주 간략하게 추려져 있고 治方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저는 재질이 노둔하여 論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李佐國 : 傳經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

山口忠居 : 『傷寒論』 중에 의문 나는 것을 여쭙고 싶은데, 노고를 끼쳐드리는 것도 죄송한 일이니 여쭙해야 하겠습니까?

李佐國 : 조금 기다리십시오.

(李佐國에게 다른 불일이 있었는데, 이후 대화가 이어지지 못했다.)

- 11차 (1764년 甲申) 『兩東鬪語』

橫田東原 : 『金匱玉函』에서 四百四病을 논했습니다. …… 단지 그 四種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뿐 병이 나뉘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四種이란 이른바 四氣이고 四氣란 이른바 地水火風입니다. 仲景이 이미 ‘經曰’이라는 두 글자를 썼는데…… 『靈樞』와 『素問』을 조사했으나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後秦의 鳩摩羅什이 『維摩詰所說經』을 주석하면서 地水火風에 대해 말하기를 각각 一

一病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 『靈樞』와 『素問』에는 이 말이 없고 佛家の 글에 이 말이 있으니, 佛家の 經을 말한 것일까요? 佛家에서 말하는 四百四病은 어리석음, 번뇌 등으로 醫家에서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仲景이 어찌 그것을 따랐겠습니까? …… 혹시 仲景의 시대에 다른 經이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테지만 명백히 기록된 글을 볼 수 없으니, 이 논설은 仲景이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孫思邈도 『千金方』에 기재하였지만, 仲景에게서 그 全文을 다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

李佐國 : 地水火風의 說이 어찌 張氏의 醫論이겠으며, 또 어찌 自然의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橫田東原 : 地水火風에는 自然의 이치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압니다. 다만 四百四病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낱말이 구분한 것이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李佐國 : 분주하게 날을 보내노라니 머지않아 서쪽으로 돌아가야 해서, 낱말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의학 교육 및 주로 활용된 醫書

- 10차 사행 (1748년 戊辰) 『兩東筆語』

丹羽正伯 :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는 學醫와 方醫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學醫는 『素問』, 『難經』의 運氣說을 主張하며 六氣, 五行의 이치를 강습하여 이것을 五臟六腑에 配屬하며, 藥性の 효과 및 七方, 十劑는 보조로 삼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河間, 潔古, 東垣, 丹溪를 尊信합니다. 方醫는 『金匱玉函』과 『傷寒論』을 鼻祖로 삼고 『千金』, 『外臺』에 從事합니다. 症에 대응하는 方劑로 그때그때 대처하는 치료법을 쓰고, 『素問』과 『難經』의 運氣 등의 이치를 보조로 삼습니다. 仲景, 孫思邈, 王燾, 許叔微, 危亦林을 尊崇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쪽 모두 폐해서는 안 되지만, 배움에는 主客과 本末이 있어야 하니, 어느 쪽이 옳은지 그대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趙崇壽 : 공의 질문은 醫門의 大綱이니 몇 마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재질이 용렬한 저로서는 갑자기 대답할 수 없으니, 깊이 생각해본 후에 말씀드

리겠습니다.

- 10차 사행 (1748년 戊辰) 『對麗筆語』

菅道伯 : 저는 어려서 부친을 잃어, 비록 『素問』과 『難經』을 취하여 읽지만 古文이 어려워 항상 잘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취한 바가 없습니다. 귀국의 醫者들은 어떤 醫書를 읽습니까?

趙崇壽 : 글을 읽는 방법은 쉬운 데서 시작하여 어려운 데에 미쳐야 합니다. 『素問』과 『難經』을 먼저 읽는 것은 잘못된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醫者들은 모두 『醫學入門』과 『醫學正傳』 등으로 시작하여, 익숙해진 후에 『素問』과 『難經』으로 나아갑니다. 『正傳』은 말의 뜻이 명백하고 『入門』은 논의가 세밀하니, 이들을 병행한다면 천하에 시행하여도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재주가 높고 견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素問』, 『難經』을 먼저 읽는다면 그 奧義를 얻기 어려우며, 諸家の 책을 널리 읽은 후에야 그 깊은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망령되어 자만한다면 호랑이를 그리려다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개와 비슷해지는 격이 됩니다. 제가 무슨 식견이 있겠습니까마는, 단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공께서 알아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菅道伯 : 말씀하신 뜻을 삼가 받들어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제가 선친에게 듣기로 학문을 하는 도리는 먼저 어려운 것을 공부하여 통하고 나면 쉬운 것은 공부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素問』과 『難經』의 奧義를 이해하고자 하면서 『入門』과 『正傳』 및 近世의 책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예도의 官醫였던 丹羽正伯가 일본 의학계의 두 경향인 ‘學醫’와 ‘方醫’를 설명하는데, 學醫는 後世派, 方醫는 古方派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다른 문답의 내용에 의하면 丹羽正伯는 古方派의 입장에 가까웠다.

趙崇壽는 『內經』을 祖宗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醫學의 학습에 있어서 『醫學入門』과 『醫學正傳』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그가 다른 필답에서 제시한 治法, 治方の 경향과도 일치한다. 이들 문답 외에 조

선 의사들이 주로 어떤 醫書를 활용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8차 (1711년 辛卯) 『桑韓醫談』 : 北尾春圃³⁵⁾가 小兒疳疾의 治方을 묻자 奇斗文³⁶⁾은 抑肝扶脾散, 消食保童元, 消食餅, 肥兒丸을 알려주는데 이는 『壽世保元』 처방이다³⁷⁾. 勞瘵傳尸의 치료법을 묻자 虞搏의 법을 따르고 加減한다고 대답하며, 北尾春圃의 醫論을 칭찬하면서 ‘東海의 天民’이라고 한다.

- 8차 (1711년 辛卯) 『兩東唱和後錄』 : 鍼灸 관련 문답 중 奇斗文이 『醫學入門』의 子午流注와 『神應經』을 공부하라고 권한다.

- 10차 (1748년 戊辰) 『兩東筆語』 : 丹羽正伯가 1蠶의 무게, 生薑 1片的 양, 약 1첩의 분량 등을 묻자 趙崇壽는 『醫學正傳』을 기준으로 답변한다. 趙德祚가 일본에서 『萬病回春』을 구입하고 싶다고 한다.

- 10차 (1748년 戊辰) 『朝鮮筆談(乾)』 : 河村春恒가 朝鮮에서 주로 활용하는 方書를 묻자 趙崇壽는 의사마다 다른데 자신은 內傷에 東垣, 外感에 仲景의 법을 쓰며, 나머지는 병에 따라 쓰고 하나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3) 『東醫寶鑑』 등 조선 醫書

『東醫寶鑑』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언급은 10차 사행에서부터 보이는데, 이는 『訂正東醫寶鑑』 간행 (1724)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湯液篇」의 본초에 관련된 질문이고, 처방의 구성을 다른 서적과 대조한 내용도 보인다.

- 10차 (1748년 戊辰) 『對麗筆語』 : 菅道伯가 『東醫寶鑑』에서 조선에는 歟冬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질문하며, 許俊의 출신지를 묻는다.

- 10차 (1748년 戊辰) 『和韓唱和附錄』 : 田中常

35) 大垣(오가키) 지방의 민간 의사. 世業醫로서 家學을 전수 받았으며, 中川修亨(나카가와 슈테이)의 『醫方新古辨』에 後世派의 大家로 기재되어 있다.

36) 1711년 8차 通信使의 良醫. 號는 嘗百軒. 품계는 朝散大夫, 직급은 直長이었다.

37) 함정식. 『桑韓唱和填箋集』의 의과학적 연구 - 1719년 己亥使行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41.

悅가 『衛生寶鑑』과 『玉機微義』의 沈香天麻湯 처방구성을 비교하거나 『丹溪心法』의 達生散 중 黃楊腦라는 약물에 대해 질문하면서, 『東醫寶鑑』에 실린 沈香天麻湯과 達生散의 내용을 언급한다.

- 10차 (1748년 戊辰) 『仙槎筆譚』: 橋元勳이 『東醫寶鑑·湯液篇』의 大口, 松魚에 대해 질문한다.

- 10차 (1748년 戊辰) 『兩東筆語』: 丹羽正伯가 酪, 酥, 醍醐의 제조법을 질문하면서 『東醫寶鑑』과 『醫林撮要』의 내용을 언급한다.

- 11차 (1764년 甲申) 『桑韓筆語』: 山田正珍(야마다 세이친)³⁸⁾이 『訂正東醫寶鑑』 간행 사실을 언급하며, 「湯液篇」의 松魚, 鱧魚, 土桃蛇, 木頭菜, 檳樹, 藍藤根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앞서 1636년 제4차 사행의 의원 白士立이 『東醫寶鑑』을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野間三竹(노마 산치쿠)의 『朝鮮人筆談』에 기록되어 있다. 1682년 제7차 사행에서 水戶(미토)藩의 大名(다이묘) 徳川光國(토쿠가와 미츠키니)가 통신사의 숙소에 과견한 儒者들은 동식물의 실물이나 도상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필담을 진행하였고, 다른 서적과 대조하는 내용은 필담창화집의 부주를 통해 제시하는데, 『東醫寶鑑』 역시 대조본으로 활용되었다³⁹⁾. 『倭人求請醫錄』에 의하면 일본은 동의보감을 1676년 처음 요청하기 시작하여 1677년, 1680년, 1708년 3차례 더 요청한다⁴⁰⁾. 이처럼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東醫寶鑑』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여러 차례 구해 가서 약재 조사에 활용하였지만, 10차 使行부터 여러 의사들의 筆談錄에 『東醫寶鑑』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문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訂正東醫寶鑑』 간행의 영향이 컸을 것이다.

『東醫寶鑑·湯液篇』의 본초에 대한 관심은 필담집의 부록으로 한글 자모를 수록하는 데에까지 이어진

다. 외국어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湯液篇」에 기재된 鄉藥名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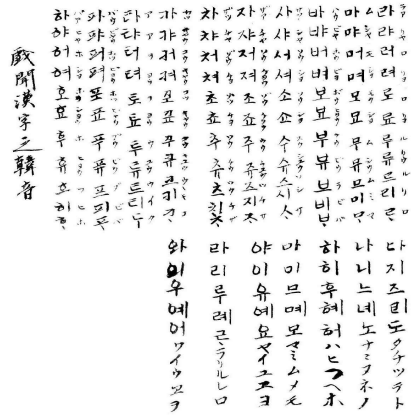


Fig. 1. Korean letters written down in 『Sokanhitsugo(桑韓筆語)』

1748년 제10차 사행의 필담록 중 直海龍⁴¹⁾의 『班荊閒譚』는 본문 앞에 「和漢用字式」을 실었는데, 이로하(イロハ)⁴²⁾ 47개 문자의 발음을 한자와 한글로 달아 놓았으며, 본초 28종의 조선 향약명을 한글로 표기해 두었다. 1764년 제11차 사행의 필담록 중 坂上善之(사카노우에 요시유키)⁴³⁾의 『倭韓醫談』과 山田正珍의 『桑韓筆語』에도 한글 자모가 수록되어 있다. 이 筆談錄들은 전체 분량 중 本草 관련 문답의 비중이 아주 높는데, 이 사실 또한 한글에 대한 관심이 『東醫寶鑑·湯液篇』의 本草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41) 松岡恕庵(마츠오카 죠우안)의 제자이다. 松岡恕庵은 伊藤仁齋(이토우 진사이, 古義學을 제창한 에도 전·중기의 대표적 유학자)에게서 儒學을, 稻生若水에게서 本草學을 배웠다.
- 42) 일본 문자 47개를 1번씩 사용하여 노래의 형식으로 만든 것. 지금의 '50음도' 순서와 다르지만 한국의 '가나다'처럼 순번을 매기는 데에 종종 사용된다.
- 43) 坂上登(사카노우에 노보루)의 아들. 坂上登은 1737년에 민간 의사로서 막부의 명을 받아 인삼 종자 20개를 맡아서 재배하였고, 인삼 국산화 사업과 諸國 물산 조사의 공적을 인정받아 1763년 幕府醫官으로 임명되었으며, 『人蔘譜』(1737), 『人蔘製秘錄』(1751), 『朝鮮人蔘耕作記』(1764)를 저술하였다.

38) 『傷寒論集成』과 『傷寒考』를 저술한 考證波 醫家. 1764년 당시 16세로 에도의 官醫였다.
 39) 구지현. 17세기 通信使 筆談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韓國漢文學研究. 2011. 47. p.543.
 40) 이유리. 『倭人求請醫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2011. 37. p.122.

그 외에 조선醫書에 대한 일본 의사들의 관심과 지식을 엿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0차 (1748년 戊辰) 『朝鮮人筆談』: 野呂元丈가 朝鮮醫書에 인용된 古書 수십 종의 목록을 가져와서 지금 朝鮮에 있는 것을 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 10차 (1748년 戊辰) 『仙槎筆譚』: 橋元勳이 『胎産診解』, 『痘疹診解』는 朝鮮의 諺文으로 기록된 것이냐고 묻는다. 또 『醫林撮要』, 『鄉藥集成方』, 『東醫寶鑑』, 『針灸經驗方』 외에 朝鮮에서 저술한 醫書로서 통용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趙崇壽가 『經驗方』 등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 모두 印刷되었는지 묻는다.

Ⅲ. 考 察

초기의 通信使行은 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교린의 재개, 포로의 송환 등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점차 문화교류가 본격화되어 8차(1711)~11차(1764) 使行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12차에서는 간소화하여 대마도에서 거행한 이후 通信使는 더 이상 과건되지 않았다. 通信使行을 통한 의학 교류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하여, 발견된 醫學筆談錄 26종 중 24종이 8차~11차의 기록이다.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8~11차 사행의 醫學筆談錄을 醫書 관련 문답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의사들은 『內經』과 『難經』의 의학 및 運氣學의 실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경우가 많았고, 반면에 『傷寒論』을 대단히 중시하였다. 다양한 『傷寒論』 注釋書를 접하고 공부하였으며,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많은 注釋書를 수입하고 있는 것을 조선 의사에게 과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또한 版本과 注釋 문제에 관심이 높았는데, 全元起本이 조선에 남아 있는지 묻거나 高麗에서 『鍼經』을 北宋에 현상한 일에 대해 조선 의사들보다 상세히 알고 있을 정도로 '後人이 고치지 않은 古本을 직접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傷寒論』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서 『金匱玉函經』에 나오는 '四百四病'의 연원과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기도 한다.

조선 의사들은 金元醫學을 계승한 明代醫學을 주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內經』을 중시하고 運氣學을 옹호하였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醫學入門』이나 『醫學正傳』을 먼저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질환에 관한 문답에서 제시한 처방이나 治法을 보면 임상에서도 『醫學正傳』, 『醫學入門』, 『壽世保元』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張介賓의 의론에 따른다고 한 곳은 눈에 띄지 않는다⁴⁴⁾.

일본 의사들의 주장과 질문 내용은 古方派가 득세하고 考證派가 등장한 에도 중기 일본 의학계의 경향⁴⁵⁾을 반영한다. 신현규, 윤창열에 의하면 토쿠가와 시대에 불교사상 및 사변론적 관념사고를 벗어나 유교나 의학에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상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金元宋明代의 溫補法 의학사상은 일본의 사회 환경과 질병의 유형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後世方 의학사상은 주도권을 잃어가고, 이에 대응하여 장중경의 상한의학사상을 주도하는 古方派가 형성되어 독자적인 일파로 발전하였다. 근세 중국이나 한국의 의가들과 달리 陰陽五行의 관념적인 사변을 배척하고 仲景 『傷寒論』 방식의 실제적인 사상을 숭상하는 古方派 의가들은 서양의학의 도입을 주도하기도 하였다⁴⁶⁾.

조선 의사들의 발언 또한 조선시대 의학계의 조류와 일맥상통한다. 백유상은 조선시대 의학계에서 明代의 정리 과정을 거친 金元代 醫學을 수용하고 『內經』 연구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였으며⁴⁷⁾, 강연석, 김남일은 한국 의학계가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 이미 『內經』을 중시하였음을 밝히고, 조선 세종연간의

44) 특히 10차 사행의 良醫 趙崇壽는 張介賓의 학설 때문에 溫熱한 약을 함부로 쓰는 폐단이 생겼다면 명렬히 비판하기도 한다. (『橐韓醫問答』)

45) 富士川游 著, 박경, 이상권 譯, 日本醫學史, 서울, 법민문화사, 2006, pp.382-412.

46) 신현규, 윤창열,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5(2), p.24.

47) 백유상, 을해자본(乙亥字本)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 연구 -간행연대 고증과 내의원각본(內醫院刻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3), p.123.

의학 권장으로 『內經』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세조 2년부터 시행한 醫書習讀官 제도가 『內經』 연구를 더욱 촉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 후기의 『東醫寶鑑』 간행 및 그 뒤를 이은 임상의학의 비약적 발전, 運氣學의 발흥 등 학문적 다양성은 기왕의 『內經』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⁴⁸⁾.

의학계의 경향 외에 에도 막부의 정책 또한 筆談錄에 반영되어 있다. 제8대 쇼군 德川吉宗의 조선약 재조사와 약제 국산화 정책에 따른 『訂正東醫寶鑑』(1924)과 『東醫寶鑑湯液類和名』(1926)의 간행 및 人蔘의 이식재배 성공이라는 두 사건을 기점으로 10차 사행(1748) 이후 醫學筆談錄의 醫書와 本草 관련 문답, 특히 人蔘 관련 내용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은 通信使行을 조선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기회로 삼았음을 筆談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1차 사행(1764)에서 筆談唱和集 전체의 수에 비해 醫事問答의 수가 크게 감소한 이유, 통신사행이 12차에서 대폭 간소화되고 결국 중단된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産物의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人蔘의 재배에 성공한 데다 일본은 이미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⁴⁹⁾, 정보를 입수하는 창구로서 조선의 중요성이 감소한 이상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사절단을 접대하면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다. 조선의 문물과 약제에 관심이 많았던 德川吉宗의 사망(1751)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8) 강연석, 김남일, 韓國『黃帝內經』研究 略史, 한국의사학회지, 2008, 21(1), pp.92-93.

49) 醫學 분야에 있어서 蘭學의 영향은 通信使 醫學筆談錄에도 반영되어 있다. 『朝鮮人筆談』(10차)에서 의원 金德崙이 일본에서 많이 쓰는 치료법을 묻자 野呂元丈(노로 겐조우)가 “전통적인 방법을 쓰고 唐法에 의거하기도 하니, 湯藥과 鍼灸는 그에 따라서 마땅하게 행합니다. 癰腫, 金創, 外治의 경우에는 大西의 법을 많이 쓰는데 唐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라고 대답한다. 野呂元丈는 쇼군 德川吉宗에게 본초학자로 기용된 막부 醫官이며, 쇼군의 명을 받아 長崎(나가사키)로 가서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雞壇嘍鳴』(11차)에서는 北山巖(호쿠야마 쇼우)가 “일본에서 사형수의 시신을 해부하여 『藏志論』을 지었는데 臟腑의 개수 등이 『內經』의 내용과 다릅니다.”라며 의견을 묻는데, 조선 의원 南斗冕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軒岐의 책을 따라야 한다고 대답한다.

IV. 結 論

지금까지의 通信使 醫學筆談錄 연구는 대개 필담록 각각의 분석에 치중되어 있어서, 전체를 관류하는 경향을 살펴거나 使行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는 미진함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醫書라는 단일 주제에 초점을 두고 다수의 필담록으로부터 관련 문답을 발췌,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본의 의사들은 『內經』과 『難經』의 의학 및 運氣學說의 실용성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傷寒論』을 중시하였으며, 版本과 注釋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古方派가 주류를 이루어 仲景 의학을 尊崇하고 方證相對를 추구하였으며 考證派가 등장한 에도 중기 일본 의학계의 조류와 일치한다.

2. 조선의 의사들은 『內經』을 중시하고 運氣學說을 옹호하였다. 임상에서는 明代醫書를 활용하였는데, 특히 金元代 의학을 계승한 『醫學正傳』, 『醫學入門』, 『壽世保元』을 주로 언급하였다. 張介賓의 醫論을 따른다고 한 경우는 없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明代의 정리 과정을 거친 金元代 醫學을 수용하고 『內經』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조선시대 의학계의 조류와 일치한다.

3. 일본에서의 『訂正東醫寶鑑』 간행을 기점으로 필담록에도 『東醫寶鑑』 관련 질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湯液篇」의 本草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여타의 조선 의서에 대한 관심도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通信使 筆談錄 중 醫事問答의 양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으나, 특징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양국 의사들의 관점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만남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작업 중 하나이다. 또한 양국 필담 참여자의 師承關係 등 배경을 세밀히 조사하여 醫書 관련 문답과 연계 분석한다면 通信使行을 통한 의학 교류의 전모를 더욱 입

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Written by Tashiro Kazui. Translated by Jung SI. Waegwan : Japanese town of seclusion era. Seoul. Nonhyung publisher. 2005.
田代和生 著. 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서울. 논형. 2005.
2. Written by Fujikawa Yu. Translated by Park K, Lee SK. History of Medicine in Japan. Seoul. Bubin publisher. 2006.
富士川游 著. 박경, 이상권 譯. 日本醫學史. 서울. 법인문화사. 2006.
3.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korean translations) Tongshinsadeungrok (I)[Haangul file]. Busan Historical Material Collection 20. Busan.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2014. p.15.
http://tour.busan.go.kr/TOURFB/nbtt_p.htm#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國譯 通信使瞻錄(I) [아래아 한글 파일]. 釜山史料叢書20. 부산.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 p.15
4. Takahashi Masahiko. A Collection of Choruses List with Korean Missions to Early-Modern Japan (1). Journal of Fukuoka University Central Research Institute(A). 6(8). 2007.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一). 福岡大学 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2007. 6(8).
5. Takahashi Masahiko. A Collection of Choruses List with Korean Missions to Early-Modern Japan (2). Journal of Fukuoka University Central Research Institute(A). 2009. 9(1).
高橋昌彦. 朝鮮通信使唱和集目錄稿(二). 福岡大学 研究部論集A 人文科學編. 2009. 9(1).
6. Cha YS. Korean - Japan Medical Culture Exchange through The Choson Delegation in The 18th Century.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6. 20(6).
차용석. 18세기 조선통신사를 통한 한일의학문화 교류.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 2(6).
7. Ham JS. The historical study of 『SangHan Chang HwaHunJiJip』. Kyunghee University doctorate thesis. 2009. p.41.
함정식. 『桑韓唱和填篋集』의 의사학적 연구 - 1719년 己亥使行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41.
8. Ham JS et al.. A Study of Medical Record about Delegation Dispatched to Japan in Chosu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 20(1).
함정식 외 3인. 조선통신사 사행원과 기록 연구 : 18세기 사행록과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역사학회지. 2007. 20(1).
9. Kim H. The Tongsinsa(diplomatic emissaries) officials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medic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Japan - examination of Pildam-rok materials. Journal of Chosun tongshinsa. 2008. 6th.
김호. 朝鮮後期 通信使와 韓日 醫學 交流 - 筆談錄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2008. 6.
10. Hong SD. Medical Doctors of Tongsinsaeng in the Later Joseon. Journal of the History in relationship between Korea & Japan. 2009. 32nd. p.106, 108.
홍성덕.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 醫員에 대하여. 한일관계사연구. 2009. 32. p.106, 108.
11. Kim HT. The development and contents quality of medical conversation by writing of the Tong-sin mission in the first half of 18th century - written around the 'Yang-dong-chang-hwa-hu -rok 『兩東唱和後錄』', 'Sang-han-ui-dam 『桑韓醫談』', 'Sang-han-jang-gang-rok 『桑韓鏘鏗錄』'

- Sang-han -ui -mun -dab 『桑韓醫問答』.
Journal of Chosun tongshinsa. 2009. 8th.
- 김형태. 18세기 전반기 通信使 醫學筆談의 展開 및 內容의 特性 - 『兩東唱和後錄』, 『桑韓醫談』, 『桑韓鏘鏘錄』下,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조선 통신사연구. 2009. 8.
12. Ham JS, Cha YS. The study of medical conversation and treatment record in Mu-jin-sa-hang- written around the 'Dae-Ryeo-Pil-yeo', 'Han-gaek-chi-heom', 'Sang-han-ui-mun-dab'. Journal of Oriental Chinese literature. 2010. 30th.
- 함정식, 차웅석. 무진사행 의학문답 및 치험 사례 기록 연구 - 『對麗筆語』, 『韓客治驗』, 『桑韓醫問答』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2010. 30.
13. Hur KJ. Japanese Travels of Joseon Medicine and the Aspect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Medical Written Conversations.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010. 19(1).
- 허경진. 조선 의원의 일본 사행과 의학필담집의 출판 양상. 醫史學. 2010. 19(1).
14. Kim HT. A study on a written answer of the medical members[醫員筆談] implemented in the disposition to the Tong-sin mission [通信使] of Chosun[朝鮮] dynasty and Japan. Journal of Yeolsang Classics. 2012. 35th.
- 김형태. 통신사 의원필담(醫員筆談)에 구현된 조일(朝日) 의원의 성향 연구 - 관심 분야와 화제(話題) 분석을 중심으로. 洵上古典研究. 2012. 35.
15. Kim HT. A study on the change of character in medical conversation by writing of 1748 -written around the "Dae-ryeo-pil-ur (對麗筆語)" and "Cho-sun-pil-dam(朝鮮筆談)". Korean Journal of SinoKorean literature. 2010. 46th.
- 김형태. 1748년 제10차 무진통신사(戊辰通信使) 의원필담(醫員筆談)의 성격 변천 연구 - 『대려필어(對麗筆語)』와 『조선필담(朝鮮筆談)』을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2010. 46.
16. Koo JH. The Significance of the Catalogue of Books Occurring in Written Communic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ese Physicians in 1748. Journal of Yeolsang Classics. 2013. 38th.
- 구지현. 1748년 조선 양의(良醫)와 일본 관의(官醫)와의 필담 출현과 서적담화 양상. 洵上古典研究. 2013. 38.
17. Koo JH. Exchanging Books between Joseon and Japan as Shown in the 17th Century Tongshinsa Pildam. Korean Journal of SinoKorean literature. 2011. 47th. p.543.
- 구지현. 17세기 通信使 筆談에 나타난 한일간 서적 교류의 모습. 韓國漢文學研究. 2011. 47. p.543.
18. Hur KJ, Park HM. Publishing of Responsory Writings in Edo Era Japan.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2010. 54th. p.314
- 허경진, 박혜민. 조선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일본 출판. 한국어문학연구. 2010. 54. p.314
19. Lee YL.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 Japan of the Copies of Joseon Period Appearing on Wae-in-gu-cheong-dueng-lok. 2011. 37th. p.122.
- 이유리. 『倭人求請膳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2011. 37. p.122.
20. Shin HK, Yoon CY. A Study on the Koho School in Japanese Medicin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1997. 5(2). p.24.
- 신현규, 윤창열. 日本醫學에서 古方派에 대한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7. 5(2). p.24.
21. Baik YS. A Study on Eulhaeja(乙亥字) 『Huangjenaegyeongsomun(黃帝內經素問)』 -Focused on Investigation of Publish era and Comparision with Other Korea-published 『Huangjenaegyeong(黃帝內經)』. The Journal Of

- Korean Medical Classics. 2011. 24(3). p.123.
백유상. 을해자본(乙亥字本)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에 대한 조사 연구 -간행연대 고증과 내의원각본(內醫院刻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3). p.123.
22. Kang YS, Kim NI. A Brief History of Korea's Study of 『Internal Classic』.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8. 21(1). pp.92-93.
강연석, 김남일. 韓國 『黃帝內經』 研究 略史. 한국 의사학회지. 2008. 21(1). pp.92-93.
23.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sushima Soke document library.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ts> [cited as at 27 October 2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마도종가 문서자료집
24. Knowledge of Oriental Medicine Web Service. Notes on Medicine - Conversations. http://jisik.kiom.re.kr/search/searchOldBookClassList2.jsp?P1=KIOM_AG12&PN1=%EC%9D%98%EC%82%AC%ED%95%84%EA%B8%B0&ssot= [cited as at 27 October 2015]
한의학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 의사필기 - 문답류

Supplement : The Table of Medical Conversation Records From the Visits of Joseontongshinsa.

| 次數 | 筆談錄 題目 | 筆談者 -朝鮮 | 筆談者 -日本 | 所藏處 | 形態書誌, 注記 |
|-----------------|---------|----------------|-----------------|--|---|
| 4(1636) | 朝鮮人筆談 | 白士立 | 野間三竹 |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写本1冊和大 |
| 7(1682) | 鮮桑筆語 |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写大本1冊 序:天和二年壬戌秋九月下澣日下道標題 卷末:明治十五年二月十三日華族徳川昭武藏書ヲ写す |
| 8(1711) | 桑韓醫談 | 奇斗文 | 北尾春圃 | [韓]國立中央圖書館 | 日本木板本2卷1冊 27.0×19.0cm 序:正徳壬辰北尾權春倫 跋:正徳壬辰岡行義 刊記:正徳三年癸巳孟春吉旦 |
| | |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2冊 |
| | | | | [日]岐阜県図書館 | 卷上(15丁28cm)/卷下(18丁28cm) /卷上·下(1冊26cm) |
| | 兩東唱和後錄 | 奇斗文 | 村上溪南 | [韓]國立中央圖書館 | 木板本 20張 四周單邊 半郭19.5×14.2cm 10行20字 上黑魚尾 刊記:正徳二年歲次壬辰季春浪速書林村上清三郎植田 伊兵衛壽梓 |
| | |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1冊1卷別録1卷韓使官職姓名1卷 |
| | 鷄林唱和集 | 奇斗文 | 稻生若水, 竹田定直 | [韓]國立中央圖書館 | 木板本15卷8冊 四周單邊 半郭19.7×14.0cm 9行18字 無魚尾 刊記:正徳壬辰夏五月御書物所出雲寺和泉掾瀬尾源兵衛 御書物所唐本屋清兵衛 印記:金澤學校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 | | 刊本5冊(和學講談所旧蔵),16冊(外務省旧蔵),10冊(昌平 平坂學問所旧蔵),26冊(紅葉山文庫旧蔵) | |
| [日]天理大学附属天理図書館 | | | | 16冊 27.0×15.4 | |
| 9(1719) | 桑韓唱和填笈集 | 權道,白興詮, 金光泗 | 北尾春倫 | [韓]國立中央圖書館 | 木板本 11卷11冊 四周單邊 無界 10行19~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版心題:桑韓填笈 25.8×17.6cm 序:享保庚子前田時棟 卷十自序:享保庚子用拙散人 |
| | |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8冊 |
| | | | |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11卷11冊26.5cm 四周單邊 10行 |
| | | | | [日]東北大学野文庫 | 11卷11冊 |
| | 桑韓唱酬集 | 權道,白興詮 | 河間正胤 | [韓]國立中央圖書館 | 木板本 3卷3冊 四周單邊 半郭17.2×12.6cm 9行20字 註雙行 無魚尾 敘:享保己亥河間正胤 刊記:享保五庚子歲九月吉日 版心題:唱和 印記:松田學鷗 |
| | | | | [日]国立国会図書館 | 3卷3冊(合1冊)26cm和装 |
| 韓客贈答 | | 林風岡 | [日]国立国会図書館 | 筆寫本 2冊/1冊(2건 소장) 写本 2冊 29cm 和装 角書:享保己亥 | |
| 藍島鼓吹 | 權道 | 小野東谿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1冊 | |
| 10(1748) | 朝鮮筆談 | 趙崇壽 | 河村春恒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戊辰筆語唱酬"写本2冊 |
| | 桑韓醫問答 | 趙崇壽 | 河村春恒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1冊(卷之下) |
| | | | | [日]東京大学附属図書館 | 2冊 |
| | 朝鮮人筆談 | 趙崇壽,金徳倫 | 野呂元文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写本1冊 |
| | 對麗筆語 | 趙崇壽 | 菅道伯 | [韓]國立中央圖書館 | 木板本 1冊(76張) 27.4×17.8cm 四周單邊 10行20字 有界 註雙行 無魚尾 序:大和延享五戊辰根本里 印記:菅印道伯夷長 刊記:延享五年戊辰年六月書房江戸日本橋通壹町日出 雲寺和泉椽發行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 | | "班荊閒譯"刊本2卷1冊 | |

| | | | | | |
|------|----------|----------|------------|-----------------------------------|---|
| | 班荆閒譚 | 趙崇壽 | 直海龍 | [韓]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木板本 線裝 上下卷2冊 四周單邊 半郭21.1×14.7cm 無界 半葉9行18字 無魚尾 刊本 2卷1冊 附對麗筆語 |
| | 桑韓鏘鏘錄 | 趙崇壽, 金德倫 | 百田安宅 | [韓]國立中央圖書館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木板本 3卷3冊 27.0×17.5cm 藏板記:廣文堂藏版 / 印記:高言信印 刊本 3卷3冊 附医談 序1:寬延紀元戊辰閏十月曾有原雲庵衣笠親堅書 序2:寬延元戊辰季秋日奧軌同直救題雲庵衣笠親堅恭書 刊記:寬延紀元戊辰冬十一月皇都書林園屋清兵衛櫻行 跋:寬延戊辰冬至雲庵賢題 |
| | 和韓唱和附錄 | 趙崇壽 | 田中常悅 | [日]国立国会図書館 | 刊 大本 1冊 浪華書林稱觥堂醉墨齋壽梓 刊記:寬延改元戊辰八月浪華書林心齋橋筋順慶町波川 與市梓 |
| | 仙槎筆譚 | 趙崇壽 | 橘元勳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刊本 1卷附1卷1冊 寬延改元戊辰秋東都書肆泰山堂壽梓 序:寬延改元秋八月鹿門望三英識 内題:橘先生仙槎筆譚 跋:寬延改元戊辰秋八月既望弘前侯侍醫服部道立 刊記:江戸日本橋三丁目竹川藤兵衛板 刊本 1冊 和大 |
| | 仙槎筆譚抄錄 | 趙崇壽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写本 1冊 |
| | 韓客筆譚 | 趙崇壽 |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写大本 2卷2冊 |
| | 善隣風雅後編 | 趙崇壽 | 佐藤養浩 | [韓]國立中央圖書館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刊本 2卷2冊 |
| | 兩東筆語 | 趙崇壽, 趙德祚 | 丹羽正伯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写本 |
| | 韓客治驗 | 趙崇壽 | 樋口淳叟 |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刊本 |
| | 韓槎填笈集 | 趙崇壽 | 合田德 |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刊本 |
| | 11(1764) | 雞壇嚶鳴 | 南斗旻 | 北山彰, 北山皓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 桑韓筆語 | | 李佐國, 李民壽 | 山田正珍 | [韓]國立中央圖書館 [日]京成大富士川文庫 | 写本 |
| 兩東鬪語 | | 李佐國 | 松本興長, 横田東原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 |
| 倭韓醫談 | | 李佐國, 李民壽 | 坂上善之 |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 写本 |
| 和韓醫話 | | 李佐國 | 山口忠居 | [韓]國立中央圖書館 [日]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 | 刊本 |
| 松庵筆語 | | 南斗旻 | 井敏卿 | | 写本 |